

울산시장 단일화 중단 공방…與 "왜곡 정황", 진보당 "김상옥 책임"(종합)

등록 2026.05.25 14:26:20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상옥(왼쪽)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스튜디오에서 단일화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 여론조사가 공정성 문제 제기로 파행 위기를 맞은 가운데, 양측의 책임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양당은 지난 23~24일 100%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방식에 합의했고 24일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김상옥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측이 '역선택' 문제를 제기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단일화를 위해 진행한 여론조사 2곳 중 민주당이 실시한 여론조사만 중단되고, 진보당의 여론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은 즉각 반발했다. 신창현 진보당 사무총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경선 결과가 예정대로 발표되지 못했다"며 "김상옥 후보 측의 일방적인 경선 중단 선언으로 단일화 열차가 파행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심각한 문제는 아직 종료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두고 김상옥 후보 측이 방송출연 등을 통해 '국민의힘의 역선택'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급한 것"이라며 "진보당이 여론조사 기관을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측 조직적 개입 정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합의된 단일화 절차를 중단시키고 단일화를 파행으로 몰아간 김상옥 후보에게 있다. 민주당 중앙당도 책임있는 주체로서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향후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는 "단일화 논의를 아예 접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가능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김상옥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약 40%의 시민이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민주진영 후보를 선택하고, 그 결과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후보가 단일후보가 돼서 본선에 올라와버리면 이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진보를 대표하는 단일후보가 아니라 역으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며 "여러가지 정황과 첩보로 이런 부분이 왜곡됐다는 판단을 총괄선대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상옥TV'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민주진보 단일화는 '민주진보 시민들의 전체 민의가 왜곡없이 반영되어 이기는 후보'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만약, 국민의힘 지지세력의 실질적 개입 또는 의사반영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민주진보 시민의 의사반영에 왜곡이 발생해 종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원하는 단일화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의힘의 선거전략이 되어 버린다. 김두관 총괄선대본부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렸다"며 "민주진보를 수호하기 위해 욕먹을 각오로 해야할 고민과 결정이 있었음을 너그러운 이해를 구한다. 오직 시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중심잡고 더 치열하게 차분하게 고민하고 실행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